

“유럽축구 배워올게요”



러시아 프로축구 안지로 코치연수를 떠나는 흥명보 전 올림픽축구 대표팀 감독이 10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흥명보 전 올림픽팀 감독

안지로 지도자 연수 떠나

지도자 연수를 떠나는 흥명보(44) 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유럽축구를 배워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흥전 감독은 거스 히딩크 감독이 사령탑으로 있는 러시아 프로축구 안지 마하치칼라에 합류하기 위해 구단 전지훈련지인 아랍에미리트(UAE)로 10일 떠났다. 헝전 감독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간다. 더 발전하고 싶었다”며 “쉽지 않은 길이고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할 수 있어도 5개월 후에 더 나은 지도자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밝혔다.

안지는 사비엘 에토오와 유리 지르코프 등 정상급 선수들이 포진한 팀으로 러시아리그에서 CSKA 모스크바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리그에서도 32강에 진출해 있다.

흥전 감독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안지 구단에 합류해 전지훈련을 마친 뒤 내달

14일 하노버96(독일)과의 유로파리그 32강전부터 본격적으로 팀과 동행하게 된다. 그는 “외부인, 그것도 아시아인이 시즌 도중에 팀에 들어가 쉽지 않았지만 히딩크 감독 덕에 안지 구단과 합의가 잘 이뤄졌다”며 “다시 한번 히딩크 감독에게 배울 기회를 얻은 점도 기쁘다”고 말했다.

자신이 최강희 현 월드컵대표팀 감독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데에는 “향후 계획에 대해 어떤 것도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가 연수를 마치는 시기가 5월이어서 최종선에 소집된 시기인 6월과 맞물린 데다 월드컵 최종선에 뛰 물려날 뜻을 여려치레 밝힌 최강희 감독이 최근 자신의 뒤를 흥전 감독이 이어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밝언을 하면서 ‘흥명보 차기 감독설’에 무게가 실렸다.

흥전 감독은 “대표팀이 3월부터 월드컵 최종선에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차기감독으로 (내가) 거론되는 것은 부담스럽고 최 감독과 예의가 아니다”며 “유럽 축구를 배울 철학이자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대표팀이 중요한 경기를 앞둔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연합뉴스

스완지 KI, 첼시 중원 봉쇄

기성용 리그컵 준결승 맹활약

유럽 챔피언에 2-0 승 이끌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에서 뛰는 기성용(24)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스완지시티는 10일 새벽(한국시간)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12-2013 캐피털원컵(리그컵) 준결승에서 기성용이 풀타임 활약한 가운데 강호 첼시를 상대로 기선을 제압했다.

스완지시티는 전반 38분 미추, 후반 추가 시간 대니 그레이의 골에 힘입어 첼시를 2-0으로 꺾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 2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한 기성용은 이날 중앙 미드필더로 풀타임을 뛰면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집중해 승리를 향해 힘을 보탰다.

8강전에서 미들즈브러의 자책골 덕에 행운의 승리를 거둔 스완지시티는 전반 첼시의 공세에 고전했다. 첼시는 전반에 후안 마타 등을 앞세워 14번의 슈팅을 날리며 스완지시티의 골문을 끊임없이 두드렸다.

스완지시티는 변변한 기회를 잡지 못했으나 상대의 빗장을 놓치지 않고 선제골로 연结였다.

전반 38분 첼시의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가 자기 진영에서 골키퍼의 짧은 패스를 받고 며칠거리던 사이 조너선 데 구즈만이



시완지시티 기성용이 10일 열린 캐피털 원컵 준결승전에서 첼시 디비드 루이스의 수비를 끊고 패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짝 따라붙어 볼을 빼앗으려 시도했다.

데 구즈만은 페널티아크 왼쪽에 있던 미추 쪽으로 이바노비치를 몰아갔고, 볼을 잡은 미추는 원발로 감아 차 골망을 훔쳤다.

다급해진 첼시는 후반 프랭크 램퍼드와 최근 영입한 멀바 바 등을 교체투입해 반전을 노렸지만 오히려 수비 실수로 실패했다.

스완지시티는 후반 교체투입된 그레이미

후반 45분이 모두 흐르고 나서 이바노비치가 골키퍼에게 한 패스를 중간에서 낚아채 추가골을 터뜨려 승리를 마무리했다.

사상 첫 캐피털원컵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신접한 스완지시티는 오는 24일 새벽 안방인 웨일스의 리버풀 스타디움으로 첼시를 불러들여 2차전을 치른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연합뉴스

지동원 ‘득점 본능’ … 연습경기서 결승골

분데스리가서 부활 예고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데뷔를 앞둔 광양제철과 출신 지동원(22·아우크스부르크)이 전지훈련 중 열린 연습경기에서 골을 터뜨렸다.

지동원은 9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벨레크에서 열린 독일 3부리그 팀인 한자로

스토코와의 연습경기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 1-0으로 앞선 전반 39분 팀의 결승골을 터뜨렸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전반 5분 토비아스 베르너의 선제골과 지동원의 결승골, 후반 슈테판 하인의 연속골에 힘입어 4-1로 크게 이겼다.

지동원과 구자철(24)은 선발로 나서 전반 전을 소화하며 승리에 앞장섰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해 임대를 추진한 지동원은 이달 초 아우크스부르크에 합류, 부활을 꿈꾸고 있다.

후반기 준비하면서 치른 첫 연습경기에서 ‘득점 본능’을 과시한 지동원은 코칭스태프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빙약한 공격력 때문에 18개 팀 17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지동원이 연습경기에서 성과를 보여준다면 19일부터 이어지는 후반기에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광주FC 브라질 용병 카시오

“목표는 1부 승격”

광주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카시오(브라질·29·사진)가 1부 승격을 위해 시동을 건다.



광주의 카시오가 10일 메디컬 테스트를 끝내고 일본 캠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86cm·78kg의 카시오는 이날 메디컬 테스트에서 골격과 굴절도가 우수하고, 뛰어난 체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려한 개인기를 갖춘 카시오는 강력한 슈팅이 일품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2008-2012시즌 동안 104경기에 출장해 37골 6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카시오는 “지난 시즌 광주에서 뛰었던 슈비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다. 인정이 많고 좋은 구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나에게 새로운 도전인 만큼 혼신을 다해 1부리그 승격을 돋ع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카시오는 광주를 선택한 데는 와이프의 영향도 있었다.

카시오는 “평소 K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입신 중인 와이프도 한국에 가고 싶다.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줬다”며 “한국은 문화나 삶의 질이 높고 경기를 하는데 방해요소도 없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나의 장점은 파워와 결정력이다. 개인적으로 많은 골을 넣으면 좋겠지만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동료와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를 하고 싶다”며 “그리기 위해서는 팀에 빨리 녹아들어야 한다. 광주에는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내가 장난기나 많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시오는 비자발급 절차가 끝나는 대로 1차 전출지인 일본 시즈오카로 건너가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산행 안내

해외 및 섬은 계재가 불가합니다.(숙지민 가능)

1월 12일(토)

▲광주도정산악회 1월12일(토) 지역 산 천왕봉(경남산청) 신년 산행, 06:30 염주체육관 주차장 출발, 06:50 무등경기장 후문, 07:00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광주도정산악회

010 3604 0365, 016 747 5748, 017 609 2924

▲산길백리산악회 1월12일(토)(광릉·선자봉), 04:30 염주롯데마트주차장, 04:50 문예회관후문, 05:00 비엔날레광장주차장(경우)

*다음카페·산길백리산악회 010 2604 6922

▲빛고을기백산악회 1월12일(토) 여수 금오산 활

입암, 염주체육관 07:30, 광주여관 08:20, 문예후문 08:30, 비엔날레 08:35 *다음카페 참조

011 607 2080, 010 2040 3067

1월 13일(일)

▲광주산행지킴이 1월13일(일) 지리산 서북한선 경지리산 면박내, 고리봉, 세걸산, 월드컵경기장(상무정·건너편) 06:50, 상무지구 무각사 입구 07:30 *다음카페·광주산행지킴이

016 609 4500, 011 635 9510

▲광주자진산악회 1월13일(일) 월출산 기찬봉, 주지봉, 염주체육관 07:30, 대인광장 08:00, 동광주홈플러스 08:10 *다음카페·광주자진산악회 011 9608 3357, 010 6886 9106

*다음카페·광주자진산악회 010 2604 6922

▲빛고을기백산악회 1월13일(일) 여수 금오산 활

입암, 염주체육관 06:40, 문예회관 후문, 05:20 동광주 07:30, 광주여관 08:20, 문예후문 08:30, 비엔날레 08:35 *다음카페·광주자진산악회

011 607 2080, 010 2040 3067

1월 14일(월)

▲광주산행지킴이 1월14일(월) 지리산 서북한선 경지리산 면박내, 고리봉, 세걸산, 월드컵경기장(상무정·건너편) 06:50, 상무지구 무각사 입구 07:30 *다음카페·광주산행지킴이

016 609 4500, 011 635 9510

▲광주자진산악회 1월14일(월) 월출산 기찬봉, 주지봉, 염주체육관 07:30, 대인광장 08:00, 동광주 07:30, 광주여관 08:20, 문예후문 08:30, 비엔날레 08:35 *다음카페·광주자진산악회 011 9608 3357, 010 6886 9106

*다음카페·광주자진산악회 010 2604 6922

▲빛고을기백산악회 1월14일(월) 여수 금오산 활

입암, 염주체육관 06:40, 문예회관 후문, 05:20 동광주 07:30, 광주여관 08:20, 문예후문 08:30, 비엔날레 08:35 *다음카페·광주자진산악회

011 607 2080, 010 2040 3067

1월 15일(화)

▲광주산행지킴이 1월15일(화) 경진군 화방산, 암우월드컵주차장 08:00, 광주여관 08:10, 광주여관 08:25, 구도교동 08:30 *다음카페·광주산행지킴이

010 3604 0365, 016 747 5748, 017 609 2924

▲광주자진산악회 1월15일(화) 월출산 기찬봉, 주지봉, 염주체육관 07:30, 대인광장 07:40, 광주여관 08:00, 동광주홈플러스 08:10 *다음카페·광주자진산악회 011 9608 3357, 010 6886 9106

*다음카페·광주자진산악회 010 2604 6922

▲빛고을기백산악회 1월15일(화) 여수 금오산 활

입암, 염주체육관 06:40, 문예회관 후문, 05:20 동광주 07:30, 광주여관 08:20, 문예후문 08:30, 비엔날레 08:35 *다음카페·광주자진산악회

011 607 2080, 010 2040 3067

1월 16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월16일(수) 경남 고성 향로봉 수래산, 07:50 백운봉도리 출발, 08:00 교원체육관, 08:30 교원체육관 후문, 08:30 동광주IC 입구 06:50, 비엔날레 07:00 *다음카페·광주청룡산악회

010 5152 2629, 011 635 9510

▲광주자진산악회 1월16일(수) 경남 고성